

1980 GWANGJU



'1980 GWANGJU = 2021 MYANMAR: 미얀마 민주항쟁 300일의 기록' 전이 내년 1월14일까지 메이홀에서 열린다. <메이홀 제공>

입체적 회화...역동적 형상

광주대 송숙남 교수 개인전, 24일~내년1월10일 호심미술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송숙남 작가(광주대 교수)는 미국 유학 시절에는 판화를 공부했다. 그의 작품 속에 회화와 판화적 요소가 동시에 보이는 이유다. 자유로운 추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여러 선들이 겹쳐지고 색깔들이 합쳐지며 울동감 넘치는 낯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송숙남 작가 개인전이 2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에서 열린다.

'진동·역동적 형상과 색'을 주제로 열리는 14번째 개인전에서 송 작가는 올 한 해 작업한 신작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판화적 기법을 담은 회화와 복합재료로 제작된 입체 조형 설치물 등 다채롭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은 개인전의 주제가 보여주는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파장과 진동, 어디로 될지 모르는 역동적인 붓질, 그리고 다채로운 색감이 만들어내는 화면은 신선하다.

'애자', '달디 단 도넛' 등의 작품은 한없이 자유롭다. 화면에 펼쳐보이는 다양한 색깔의 굵직한 붓질과 때론 두껍고, 때론 가는 다채로운 선, 원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 단순하지만 리듬감이 돋보이는 '꽃봉오리' 작품은 대담한 붓질이 보여주는 울동감이 눈에 띈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 "무던히도 오랫동안 내 작품들이 편안한 시의 운율로 공명되고 진동되는 작품으로 완성되기를 바랐다"며 "삶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한 그림을 원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작품은 복잡한 선들과 여러 겹의 원들로 숨차게 엉켜있다. 그 난삽함이 논리적이



'달디 단 도넛'

않고 이해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매료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고 밝혔다.

김영순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생존의 위기가 만연한 팬데믹 패닉 속에, 역동적 생명의 빛과 리듬을 전하는 이 전시가 한 광자 생명의 리듬으로 공감되고 공유되어 생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송 작가는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교에서 판화 과정, 미국 캔자스대학교에서는 석판화 과정을 공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이사, 한국 디자인협회 이사,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대 패션·주얼리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얀마 민주항쟁 300일의 기록

광주가 미얀마에 보내는 '연대 메시지' ...그림·사진 등 전시

미얀마 광주연대, 5·18재단 주최...내년 1월14일까지 메이홀

2021년 미얀마와 1980년 광주는 하나였다. 울 초 미얀마 민주화 투쟁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연대의 손을 내민 건 광주의 사회단체와 예술가들, 그리고 시민들이었다.

사회단체는 집회 등을 통해 미얀마의 현실과 그들의 투쟁을 알리는 데 힘썼고, 시민들은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마음을 보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사진으로, 음악으로 미얀마와 함께했다.

미얀마 300일 투쟁을 정리하는 전시가 내년 1월14일까지 광주 정신 메이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3번길 1) 3개 층 전관에서 열린다. 미얀마 광주연대가 주최하고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기획이다.

'1980 GWANGJU = 2021 MYANMAR: 미얀마 민주항쟁 300일의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이

번 전시는 군부의 총 앞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광주시민들이 보내는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시민의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활동, 문화예술인들의 연대 활동, 성금모금 등 미얀마 광주연대 활동과 부산·서울, 포항·제주 등 국내 미얀마 연대활동(사진 300여점), 미얀마 현지 사진(100여점), 연대활동 현장에서 선보인 작품(100여점) 등을 만날 수 있다.

4층 전시장에는 전국의 작가들이 미얀마를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이 내걸렸다. 홍성담·전정호·고근호·김화순·박태규·홍성민·전혜옥·정정영 등 참여작가들은 회화, 판화,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처음 광주에서 시작된 예술인들의 활동은 서울·인천·안성·목포·신안·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됐고

각 지역마다 현지 예술인들이참여해 전시는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지난 오월에는 미얀마와 함께 광주 오월광장, 망월묘역 등 '광주의 오월'을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이 함께 메이홀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미얀마 민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특별대사 안나잉 톤미안나 등이 참여했으며 광주연대는 이 자리에서 NUG에 성금을 전달했다. 또 주홍 작가와 이당금 푸른연극마에 대표가 1980 광주의 실종자 소녀의 영혼과 2021미얀마 태권소녀의 영혼이 만나는 개막 퍼포먼스 'Everything will be OK'를 진행했다.

그동안 미얀마 사태에 발생 후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시작해 모금과 집회 등 여러 미얀마 민주화 지지 활동을 펼쳐온 5·18기념재단과 미얀마 광주연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전시와 다양한 행사를 계속해 갈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위로와 행복이 가득한 집

정난주 개인전, 31일까지 LH 휴랑갤러리

'위안을 전하는 행복한 집으로의 초대.' 마음을 밝게 해주는 화사한 꽃그림과 '집'을 상징하는 집의 모습이 편안함을 전해준다. 힘겹게 코로나 19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는 그림들이다.

정난주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LH광주전남지역본부1층 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색·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상상의 나라를 떠는 동화 속에 등장할 것같은 자연 풍광과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 행복을 전달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에는 'HAPPY HOUSE' 연작 20여점이 나왔다. 아름다운 꽃과 구름, 나무에 둘러싸인 '집'은 작품 제목 그대로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행복'이 가득한 공간이다. 자유로운 붓터치와 경쾌한 느낌의 알록달록한 색감들은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 작가는 "내 안에서 머물러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들을 풀어난 그림들이 색과 형상으로 만나



'HAPPY HOUSE'

는 한 편의 시가 돼 많은 사람과 공감을 나누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 작가는 조선대 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미술, 광주전남여성작가회, 광주미술작가회, 전우회, 현대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22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2022 지원사업 사업설명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2022 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16억9000만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4억)', '야외공연장차량지원사업(1억6000만원)', '광주문화자산콘텐츠화제작지원(1억5000만원)' 등 총 지원액 24억1000만원으로 2021년도 대비 4억원 증액됐다. 지원사업 공모는 오는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는 제일 먼저 공모가 시작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2022년도 모든 지원사업은 실적증빙 자료를 최소화했으며 세부사업별로 '정액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자가 예비 심사위원을 직접 추천하는 무작위 추천방식도 유지되며 개인은 최근 1년, 단체는 4년 연속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2년 연속)을 받은 경우 2022년도 공모에 지원 불가하다.

접수는 오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8까지이며, 28일 오후 6시 이전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670-7421. /김미은 기자 mekim@



피아니스트 박재연



첼리스트 이후성

박재연&이후성 듀오 콘서트

2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피아노와 첼로 선율을 함께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박재연&첼리스트 이후성 듀오 콘서트 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브람스, 쇼팽 등 작곡가의 듀오 작품을 집중 탐구하며 매 공연 전석 매진을 이뤘은 피아니스트 박재연과 이후성의 세 번째 듀오 무대로 주제는 'Falling into the Romantics'.

공연에서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 Major, F#m 8'과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두곡을 들려준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는 프랑크가 이자이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1886년 초연됐다. 4악장

으로 구성된 이곡은 프랑크의 유일한 바이올린 소나타로 베토벤, 브람스의 작품과 함께 걸작으로 꼽힌다.

라흐마니노프의 곡은 연주시간이 35분에 달하는 대규모 소나타로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아니스트 박재연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에서 학사,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첼리스트 이후성은 조선대,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학사,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석 2만원이며, 학생은 50% 할인된다.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문의 062-230-73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